

근현대기록물의 보존 현황과 방안

The Preservation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chives

정소안(Soahn Jung)

E-mail: helen_37@naver.com

국민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박사과정



논문접수 2022.10.17
최초심사 2022.10.22
게재확정 2022.11.03

ORCID

Soahn Jung
https://orcid.org/0000-0002-4753-3467

초 록

이 글은 근현대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기록물의 유형을 살펴보고 기록관의 역할과 범위,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쓰였다. 수집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근현대기록물의 범위를 지정하고 기록관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기록물의 수집과 보존에 대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article was written to examine the types of records gathered for institutions collecting modern and contemporary records, examine the role and scope of the archives, and determine the next steps. By specifying the scope of modern and contemporary records for collection and examining their role as a record repository, I would like to consider approaches to balancing the collection and preserving records and suggest methods for developing professional capabilities.

Keywords: 근현대기록물, 예방보존, 기록관의 역할, 보존과학, 보존과 복원
Modern and contemporary records, Preventive preservation, the role of the archives, preservation scienc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 한국기록관리학회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2007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면서 국가지정기록물이 수집·관리된 지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여기서 ‘국가지정기록물’이란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을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멸실 또는 훼손될 위기에 놓인 민간기록물을 보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다. 공공기록물만으로는 당시의 사회상을 보여주거나 파악하는데 상당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당시 사회의 여러 측면을 보여줄 수 있는 민간기록물의 관리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 되었다(최재호, 이영학, 2016, 55). 국가기록물 지정제도는 민간 기록물 중 국가적으로 영구보존의 필요가 공인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주된 목적은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존과 관리는 주로 보존용품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다. 반면 11세기부터 20세기의 기록물을 전문적으로 수집·보존·관리하고 있는 영국 메트로폴리탄 기록보존소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수집·관리 뿐 아니라 보존에 관한 교육도 전문적으로 받게 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 특히 기록보존소에서는 통합 보존, 보존환경 개발, 현장보존 실시, 보존용품 제공, 수집을 위한 환경 조성 등 크게 5가지의 목표를 수립함으로써 수집, 전시, 활용 뿐 아니라 원형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기록관으로 수집하는 모든 자료를 보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록관에서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보존하고 있는 실정인 면서도 단지 그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전자화하거나 환경적인 보존관리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 기록물에 대한 보존과 학적인 관심은 크게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자체 및 많은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근현대 기록물 수집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논의되었던 15년 전보다 기록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근현대기록물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지금, 수집된 기록물들을 바탕으로 근현대기록물의 범위를 지정하고 앞으로 기록관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근현대기록물의 개념과 범위

2.1 근현대기록물의 정의

근현대기록물은 그 자체만으로도 과거와 현재의 사회적 맥락을 이어주는 역사의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수집 범위가 현재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록물 수집대상 혹은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근현대라는 시기에 식민통치 경험, 냉전체제 편입이라는 역사적 체험은 사적인 영역에서 무엇인가를 기록하거나 마음을 터놓고 말하기 힘든 정치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중앙, 지방의 공적·사적 기록물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전무했기 때문에 상당수의 자료가 유실되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국사편찬위원회, 2003, 6). 그러던 중 최근 몇 년간 지방자치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민간기록물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변화된 인식 중 하나이나 수집과 활용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는 보존·복원에 대한 인식 개선이 여실히 필요해 보인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민간기록물을 수집하는 목적은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근현대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는 기관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민간기록물 수집기관(출처: 기관별 공모전 포스터)

지역/기관명	수집연도	분야	참고사항
김제시	1900년대~2010년대	지역의 시대상을 볼 수 있는 기록물 (문서류, 박물관류, 시청각류 등)	-
당진시	1900년대~1990년대		-
익산시	1900년대~1990년대		-
전주시	1400년대~1990년대		시민기록관 운영

지역/기관명	수집연도	분야	참고사항
청주시	1900년대~1990년대	지역의 시대상을 볼 수 있는 기록물 (문서류, 박물관류, 시청각류 등)	최초의 통합전문 기록관
파주시	1900년대~1980년대		DMZ 기록 수집
평택시	1900년대~2000년대		-
경상남도	1900년대~2000년대		-
증평군	1900년대~2010년대		-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는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1900년대부터 1990년대를 수집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수집하는 범위 역시 사건, 역사, 문화, 행정, 인물, 음식, 마을 등 당시의 시대상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사실상 생활사 자료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민간기록이자 각 지방공동체의 역사를 나타내는 기록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생활사는 개항과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굴곡을 거쳐 만들어진 지역정체성으로 근현대사적인 역사문화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표 2〉 민간기록물 수집 현황(출처: 정보공개포털(open.go.kr), 정보요청기간: 2022. 9. 20. ~ 10. 12.)

연도	지역/기관별									
	김제시	당진시	익산시	전주시	청주시	파주시	평택시	경상남도	증평군	
1900~	-	-	749	18	-	102,761	123	-	-	
1910~	4	1		63	-			14	-	
1920~	1	-		166	-			16	11	
1930~	10	-		149	-			90	26	
1940~	12	-		173	8			10	5	
1950~	41	3		480	15			38	98	41
1960~	56	3		770	82			119	464	40
1970~	52	5		1,040	92			357	1,602	229
1980~	152	3		813	94			380	5,534	405
1990~	133	3		1,116	-			690	4,392	183
기타	-	-	-	686	-	-	5,246	-	266	

※ 기타: 1900년대 이전 또는 2000년대 이후거나 연대 미상인 기록물들을 포함하고 있음

〈표 3〉 유형별 수집 현황(출처: 정보공개포털(open.go.kr), 정보요청기간: 2022. 9. 20. ~ 10. 12.)

유형별	지역/기관별								
	김제시	당진시	익산시	전주시	청주시	파주시	평택시	경상남도	증평군
책자류	72	15	395	1,184	269	3,852	116	32,452	59
사진류	337	2	96	1,365	20	4,188	6,812	7,144	1,136
기타	52	1	258	2,928	2	94,721	25	1,434	11

당진시와 익산시, 청주시, 경상남도는 종이-문서 등의 책자류가 많이 수집되었으며, 김제시와 파주시, 평택시, 증평군은 사진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책자류는 졸업, 수료, 표창장과 같은 증서나 편지, 계약서, 지출문서, 기차표, 명부 등이었으며 사진류는 지역의 전경이나 활동 모습, 기념식 참석 등과 같은 행사나 개인의 추억이 포함된

내용들이 많은데 이는 기관에서 수집하고자 하는 목적과 기증자의 기록물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익산시는 연도별 구분 없이 1900년대로 통칭하여 정리하고 있으며, 파주시도 수집된 기록물의 연도별 분류가 진행되지 못한 상태인데 이는 시스템의 문제 뿐 아니라 기록물의 특성상 기증자에 의해 연대를 추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대부분의 근현대기록물은 공모전을 통해 기증을 받고 있어 기록물의 상태가 좋은 편이나 수집되는 양에 비해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여 분류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문서고에 보관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존환경만 조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존과학적인 부분까지 접근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현대기록물의 범위를 수집기관에 맞춰 1900년대부터 1990년대로 설정하고자 하며 해당 시기에 수집되었던 기록물들을 통해 앞으로 기록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2.2 근현대기록물의 보존환경

우리나라에서 근현대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는 국가 단위 기관으로는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들 수 있다. 그 중 국가기록원에서 수집한 문서는 1945년 이후 각 기관에서 영구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들이 대다수로 민간기록물이기 이전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기록정보로서 공공의 영역에서 발생한 결손을 메우기 위해 수집된 기록물로 보인다. 반면 각 지역의 기록관에서 수집하고 있는 기록물들은 일기, 수첩, 가계부와 같은 개인의 일상적인 기록부터 상장, 졸업증서, 전쟁일지, 장례식 등과 같은 생활사 기록까지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의 사료적 가치가 충분하다. 사실상 지역에서 공모전을 통해 수집하지 못했더라면 사라졌을 역사적 자산으로 개인이 생산해 낸 삶의 기록을 통해 과거를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임에도 대부분 전문적인 보존복원의 처리 과정 없이 보관만 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현대기록물 중 산성화가 진행되고 있어 보존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종이 기록물을 대상으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한다.

3. 근현대기록물의 특성

3.1 근현대기록물의 유형과 특징

근현대기록물 중 종이 기록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제지산업과도 함께하고 있다. 1958년 한국제지공장이 설립된 이후부터 종이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는데 중성지가 개발되어 상용화되기 이전인 1980년대까지는 산성 초지법으로 생산된 산성지가 대부분이었다. 종이의 주원료인 펄프는 친수성이다 다공질로 인쇄할 때 잉크가 번지기 쉬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로진이라는 강산성 표백제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누렇게 변색이 되는 황화현상과 함께 쉽게 바스러지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일반적인 산성지의 수명은 평균적으로 50년에서 100년 정도인데 기관들에서 수집하고 있는 근현대기록물 중 종이 기록물들이 누렇게나 바스러지는 것은 산성화 때문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1992년 정부에서는 보존 가치가 있는 모든 정부의 공문서를 중성지로 대체할 것을 각급 행정기관에 지시하기도 했는데 사실상 민간에서 수집하고 있는 근현대기록물들은 공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산성화가 진행되고 있어 더욱 예방보존이 시급한 상황이다.

근현대기록물 수집 현황을 살펴보면 종이류 뿐 아니라 사진, 필름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은 근현대기록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열화인자에 의해 노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이 매우 필수적이다. 특히 종이 기록물의 경우에는 반세기 만에 급속히 손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근현대기록물의 가치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보존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관의 역할과 함께 기록물관리의 범위를 재정의함으로써 근현대기록물을 보존 복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3.2 근현대기록물 수집기관 및 특징

대부분의 기록관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해당 지역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별시·광역시·도의 경우 2007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춘 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록관이 설립되는 양적 성장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에 반해 보존과학적인 인력과 장비, 연구 등과 같은 질적 성장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기록, 구술채록, 민간기록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록물들이 수집되어 보존·활용되는 지금 현시점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록관의 정체성 재정립이다. 공공기록물법에서의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과 함께 수반되는 업무를 의미하는데 점점 공공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중요 기록물들을 발굴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만큼 기록관의 역할도 보존과 복원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똑같은 기록관이라고 할지라도 지역의 정체성과 함께 수집되는 기록물의 유형에 따라 보존하고 관리해야 하는 범위가 다를 것이기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록물의 관리를 위해서는 기록관의 기능과 역할이 생산과 활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존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제화할 수 있는 지침이나 규정 또한 필요하다. 기록물을 장기 보존하여 관리해야 하는 업무가 기록관의 기본적인 역할이기에 보존 시설과 장비, 환경 등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항온항습시설과 소화기, 보존상자 등 환경적인 인프라 구축일 뿐 훼손, 멸실, 보존, 복원과 같은 전문적인 영역을 위한 시설과 장비, 인력 등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4. 근현대기록물의 보존과 복원

4.1 우리나라의 보존복원기술

2007년 정부에서는 근현대기록물 보존·복원 기술 연구 개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한 바 있다. 이는 공공기록물의 수명을 크게 늘리는 효과를 기대한 연구로 국가기록원에서는 ‘기록물 보존기술 연구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으나 전문적인 연구 개발 경험이 부족한 이유로 2008년, 2012년, 2016년, 2022년 총 4회에 걸쳐 사업기획연구, 중장기 기획 연구, 설계 기획연구, 효과성 분석 등의 연구로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2008년 ‘기록물보존복원기술 R&D 사업 기획 연구’에서는 보존복원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이 매우 시급한 상황으로 선진 기록물관리기관의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민간, 출연(연)을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2012년 ‘기록보존기술 R&D 성과분석 및 중장기 기획연구’에서는 유형별 재질 요소에 대한 재정의와 함께 기존 DB를 재분류하는 등 근현대기록물 분야의 상태평가에 대한 기초 연구와 기술 개발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4.2 종이 기록물의 보존과 복원

근현대기록물 중 종이 기록물은 19세기부터 20세기의 산성 초지법에 따라 제조된 양지로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하며 종이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산 또는 산을 발생시키는 물질에 의해 쉽게 산화되어 훼손된다(전수연, 김형진, 2017, 86).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종이의 산성화를 예방하고자 국내 최초로 대량자동화 탈산처리장비를 구입하여 산성화된 자료들의 탈산처리를 시작하였는데 탈산처리 된 문서 중 산성을 나타내는 문서가 상당량 발견된 것은 한 번에 많은 양의 문서를 탈산처리 함으로써 생긴 문제로 보인다. 본래 종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열화인자에 의해 노화가 진행되고 본래의 성질보다 더 열악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를 보강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이다. 특히 종이 기록물은 그 형태가 다양한 만큼 황화현상 뿐 아니라 찢김이나 천공, 결실 등과 같은 물리적인 손상도 상당수 생기게 되는데 이 경우 사용하는 방법이 수작업인 라이닝 방법과 기계를 이용하는 리프캐스팅이다. 서양에서 고안된 리프캐스팅은 1960년대에 동유럽에서 개발된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종이 기록물의 수리 복원 작업에 사용되고 있다. 리프캐스팅은 결실되거나 바스러지는 훼손된 종이자료를 복원하는 방법의 하나로 기계식 배접장비인데 종이자료의 물리적 강도 보강처리와 동시에 화학적으로 탈산처리까지 병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곰팡이나 해충에 의해 훼손된 자료나 산성화가 많이 진행된 신문자료에 적합한 보존처리법으로 판단된다(박소연, 이귀복, 2009, 207). 또한 실제로 서양에서 개발된 방법이기 때문에 대체로 양지에 적용한 사례가 많으며 국내의 경우에는 2003년 국가기록원에서 처음 도입되어 사용되었으나 전통적인 수작업인 라이닝 방법으로 수리 복원하는 경우가 더 많아 리프캐스팅의 사용 빈도도 적을 뿐 아니라 적용 사례에 대한 연구도 미비한 실정이다. 그렇기에 종이 기록물과 함께 다양한 유형별 보존복원 장비를 활용한 재질, 용품, 상태 등을 분석한 연구가 축적된다면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는 기록관의 기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4.3 근현대기록물 보존방안 제언

지식정보사회인 21세기에서 매체의 변환만큼이나 빠르게 변화하는 것이 기록물의 유형이다. 원본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DB를 구축하고 전자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형의 자산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기초 연구와 함께 보존과학적인 전문 역량을 가진 인력의 양성이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보존과학적인 전문 역량이라는 것은 문화재 보존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20세기에 들어와 활발하게 전개되어진 문화재 보존은 직접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즉 유물이 손상되었으면 그 손상요소를 제거하고 강화시켜 전시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21세기인 현재 문화재보존의 방법은 직접적인 처리 못지않게 간접적인 예방보존을 중요시하게 되었다(박지선, 2004, 32). 그리고 현재 지방자치기관 등 여러 기관에서 파편적으로 근현대기록물을 수집하고 있지만 국가 단위 기관에서 제대로 보존복원을 하기에는 인적·물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제대로 된 보존과학적인 방법과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수집된 근현대기록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멸실 또는 소실되어 사장될 것이다. 그러므로 수집 대상이 광범위한 근현대기록물의 연대별·유형별 분석을 통해 원형을 효율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환경과 함께 방법이 제시된다면 기록관리와 문화재보존이 공존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록관리에서 의미하는 '기록물'과 문화재에서 의미하는 '지류'는 단어만 다를 뿐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자료를 보존복원하여 후대에 전승한다는 개념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아카이브라는 단어가 상용화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지닌 기록물에 관심이 많은 지금 기록학과 문화재보존학에 있는 전문가들이 깊이 있게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최근 근현대기록물 수집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수집과 보존의 균형이다. 특히 근현대기록물의 특성상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집된 당시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사료적 가치가 높아질수록 물리적인 형태도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물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예방보존'이 필수여야 한다.

사전적 의미로 '예방'이란 질병이나 재해 따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하여 막는 일을 의미하며, '보존'은 잘 보호하고 간수하여 남기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문화재보존학에서의 '예방보존'은 문화재의 전시, 보관, 운반, 활용 등의 과정에서 문화재의 손상이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보존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이며, 기록학에서도 기록물의 훼손이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행인 것은 근현대기록물의 특성상 아직 많은 유형별 기록물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즉 원형을 '직접' 보고 '예방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기록관의 역할 확대와 함께 근현대기록물의 유형별·재질별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보존복원 방법을 고민하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 국가기록원 (2008). 기록물 보존복원기술 R&D사업 기획연구. 대전: 국가기록원.
- 국가기록원 (2012). 기록보존기술 R&D 성과분석 및 중장기 기획 연구. 대전: 국가기록원.
- 국가기록원 (2016). 기록보존기술 중장기 R&D 설계 기획연구 사업. 대전: 국가기록원.
- 국사편찬위원회 (2003). 현장조사와 정리를 위한 근현대 지방사료 창 열기. 한국사연구지원보고자료집, 7, 6-7.
- 박소연, 이귀복 (2009). 리프캐스팅처리 원료로서 한지의 특성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펄프·종이공학회 2009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7-213.
- 박지선 (2004). 한국의 지류 및 섬유문화재의 보존. 문화유산보존연구소 학술심포지움. 30-33.
- 전수연, 김형진 (2017). 종이 매개체를 이용한 간접 탈산처리 방안 탐색. 한국펄프·종이공학회 2017년 춘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요약집, 86.
- 최재호, 이영학 (2016). 국가지정기록물 관리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47, 51-93.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i, Jae-Ho & Lee, Young-Hak (2016). A Study on Management Present and Improvements of National Records Designation System.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7, 51-93.
- Jeon, Soo-Yeon & Kim, Hyung-Jin (2017).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Indirect Deacidification treatment using paper material. Proceeding of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 Technical Association of the Pulp and Paper Industry, 86.
- National Archives (2008). A Planning Study on the National R&D Project in the Fields of Archives Conservation & Restoration Technology. Daejeon: National Archives.
- National Archives (2012). The Evaluation and Planning archiving technology R&D. Daejeon: National Archives.
- National Archives (2016). A Study on Long-Term planning of Archiving Technology R&D. Daejeon: National Archives.
- Park, Ji Sun (2004). Preservation of Tributaries and Textile Cultural Properties in Korea. Academic Symposium of the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Institute, 30-33.
- Park, So Yeon & Lee, Kwi-Bok (2009).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Paper as a Raw Material for Leafcasting Treatment. Proceeding of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 Technical Association of the Pulp and Paper Industry, 207-213.
-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2003). Opened a modern and contemporary local feed window for on-site investigation and organization. Funded Researching Reports on Korean History, 7, 6-7.

